

학회소식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학회의 '의학학회 대상' 수여



대한의학회에서는 회원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회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1월 회원학회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본 정기보고서에 근거하여 대한의학회는 회원학회의 학술활동을 평가하고, 회원학회 관리에 활용하며, 또한 대한의학회 약사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본 학회는 학술활동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회원 인준 및 심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기보고서와 임원명단, 학회회칙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 한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이 우수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선정되었다. 2009년 3월 19일(목)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본 학회를 대표해 박중신 사무총장이 '의학학회 대상'을 수상했다.

Journal of Women's Medicine 제 2권 2호 (6월호) 투고독려 안내

본 학회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에 발맞추어 학문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학회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2008년도 6월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Women's Medicine을 창간하였다. 2009년부터는 연 4회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6월 1일 발행되는 제 2권 2호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본 영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타학술지나 논문집 등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향후 게재될 예정이 없어야 하며, 제출된 원고는 본 학회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Journal of Women's Medicine의 논문투고는 기존의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과는 별도로 진행됨). 2008년도 11월 19일 개최된 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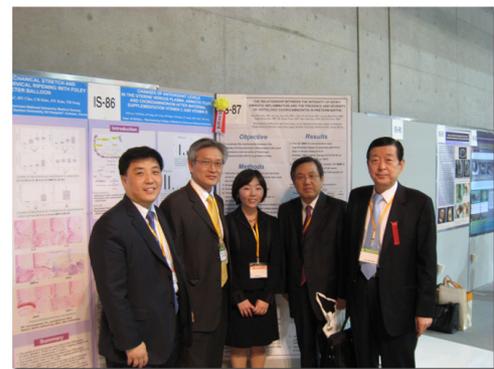
of Women's Medicine은 2010년 제 53회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학술지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접수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후 접수된 논문은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취득에 사용될 수 없다.



행사소식

▶▶▶ 돌아보기

<61st Annual Congress of the Jap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개최



일본산부인과학회에서는 2009년 4/3~4/5까지 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에서 '제 61회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강순범 이사장 (서울의대), 울산의대 남주현 교수, 연세의대 박용원 교수, 부산의대 이규섭교수, 아주의대 유희석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였으며 본 행사 하루 전인 4/2에 진행된 'International Seminar for Junior Fellows'에는 본 학회를 대표해 가톨릭의대 남궁정, 부산의대 문수현, 서울의대 김선민, 성균관의대 김철중, 전남의대 조혜연 선생이 참석하였다. International Session에서는 본 학회에서 50여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 서울의대 김선민(임상강사) 선생과 울산의대 임소희(전공의 4년차) 선생은 우수한 발표내용으로 IS Award를 수상하였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조 명예이사장 (포천중문의대)은 일본산부인과학회 명예회원으로 선정되었다.

미리보기

<제 3회 여성건강의 날> 개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주체인 여성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건설을 취지로 <제 3회 여성건강의 날>을 개최한다.

- 일시 : 2009년 5월 7일 (목) 오후 2시~4시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지하1층 대강당

❖ 주요행사

- ▶ 1부 - 강연 '여성 건강 검진, 건강한 여성으로 거듭나기'
 - * 여성 암 예방 및 조기진단 (자궁경부암 백신) · 노주원 교수/동국의대
 - * 갱년기 여성 건강 관리 (골다공증) · 김 탁 교수/고려의대
- ▶ 2부 - 축하공연 및 경품추첨

<제 41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개최

작년에 이어 개최되는 본 연수강좌는 진료 및 연구분야에서부터, 건강보험관련, 그리고 교양강좌까지 마련되어 신입 전공의와 4년차 전공의 뿐 아니라 모든 회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행사에서는 '칼의 노래'를 저술하신 김 훈 작가가 '속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예정이다.

- 일시 : 2009년 5월 22일(금)~5월 23일(토)
- 장소 :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보험소식

1. 심평원에서는 의료장비의 적정사용유도를 목적으로 의료장비와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연계하여 심사하고 있다. 심평원에 장비 현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비의 공동이용시 공동이용계약서 작성 및 공동이용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비 명세서 작성요령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조정되는 기관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청된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보험소식란 참조)

* 골밀도 장비별 적용 수가 안내(형식 규격에 맞는 적용 수가 확인)

장비 번호	형식 규격	골밀도 장비	적용수가
093-00	093-01	양방사선(광자)골밀도기(DEXA)	HC341/HC342
	093-02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기(QCT)	HC343
	093-04	양방사선말단골밀도기(PDEXA)	HC344
	093-06	초음파골밀도기(QUS)	HC344
	093-07	방사선흡수측정기 (예:Trasys II, Softray)방식	HC345

2. '열풍선을 이용한 과다월경 자궁내막소작술'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였다.
3. 심평원 서울지원 질의에 대하여 질염진료 시 자궁경부암검진검사 (PAP)는 질염진료와 무관하므로 비급여임을 확실히 하였다.

해외학회 참관기

제 21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 (AFOG) 학회 참관기 (서울아산병원 김영탁 교수)

제 21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 학회가 3/26~30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는 매 2년 마다 개최되며 2007년 일본 도쿄 대회에서 연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였고 장윤석 교수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 23개 국가들이 국가 단위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장윤석 회장님을 비롯하여 남주현 교수가 Endoscopy Committee Chair로 김영탁 교수가 Council Member로 공식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는 2009 뉴질랜드 산부인과학회(RANZCOG)와 동시에 개최되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지역 의사들이 대규모 참여함으로 동양권을 넘는 큰 규모의 대회가 되었다.

대회 첫 날 장윤석 회장님의 Presidential Lecture는 우리나라 불임 분야의 발전사와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차후에 강연 내용을 CD로 각국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여 명이 참가하여 구두 발표 및 포스터 전시를 하였으며 울산의대 박정렬 임상교수가 최우수 구두 발표상 수상을 하였다.

AOFOG는 아세아오세아니아의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후원하여 각국의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YGA (Young Gynecologist Award)를 제정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수상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도 본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10,000를 장학금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번대회에서도 9명이 선정되어 대회 참가를 후원 받았으며 이 중 네팔의 수상자 Dr. Jitendra Pariyar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 예정이다. 2년 임기 AOFOG의 신입회장에는 홍콩의 Pak Chung Ho 교수가 임명되었고 2011년 차기 학회는 타이완에서 개최되며 2013년 후보지는 태국으로 선정되었다.



61st Annual Congress of the Jap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참관기 (서울의대 임상강사 김선민)

작년 8월 분만장 컴퓨터 앞에 앉아 환자파악 중이었던 나에게 “이거 한 번 해볼래요?” 하시며 교수님께서 공문을 한 장 보여주셨다. 대한산부학회에 초록을 내고 여기서 영탁터로 선정되면 항공 및 숙박을 전액 지원받고 일본산부인과학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학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일본의 교토라는 사실은 학문적 욕구보다는 나의 감성적 욕구를 먼저 자극했던 것 같다. 해가 바뀌고 전문의가 되고 임상강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교토에 대해 품어왔던 나의 기대와 환상은 어느덧 바쁜 생

활 속에 잊혀져갔고 피곤에 찌든 나에게 영탁터로서 학회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5분당 100엔에 달하는 호텔 컴퓨터 사용료에 투덜거리며 아직 채 완성하지 못한 슬라이드 파일과 씨름하면서 교토에서의 첫날밤이 지나갔다. 학회가 열리는 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는 숙소였던 Grand Prince Hotel Kyoto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 매우 편리했다. 내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은 International Seminar for Junior Fellows 와 International Session 이었다. International Seminar for Junior Fellows 에서는 세계 각국의 영탁터들이 여섯 명씩 소그룹을 형성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미리 준비한 자신의 슬라이드를 발표하고 그룹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분위기가 매우 자유롭고 화기애애 하였으며 토론 열기도 뜨거워서 정해진 시간이 금방 지나간 느낌이었다. 처음에 그룹 리더분이 나를 ‘도꾸또 김~’이라고 부르길래 속으로 ‘내 이름은 도꾸또가 아닌데’ 하며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곧 ‘도꾸또’가 ‘doctor’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것을 알고 웃었다. 저녁에는 호텔에서 우리들을 위한 banquet가 제공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향긋한 후쿠오카 산 사케와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이튿날 International session 은 자신의 포스터 앞에서 oral presentation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오히려 국제 학회에서 발표 경험이 전무했던 나에게 부담이 덜 한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번 포스터가 IS award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마지막 날 열린 Banquet에서 상장과 상금을 받고 여러 선생님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다. 남은 시간에는 아름다운 교토를 관광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일본산부인과학회에 영탁터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회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후배들이 계속해서 참가하여 좋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



(사진은 본 학회 영탁터 참석자. 왼쪽부터 부산의대 문수현, 가톨릭의대 남궁정, 서울의대 김선민, 성균관의대 김철중, 전남의대 조혜연)